

## 중년층의 실버타운 태도에 따른 노후생활준비 및 실버타운의 요구도 분석 - 경남지역 거주자를 중심으로 -

### Provision for Later Life and Needs for Elderly Housing According to Cognitional Attitude about Elderly Housing

김상희\*  
Kim Sang-Hee

이은미\*\*  
Lee Eun-Mee

#### Abstract

The aim of this study is to clarify the provision for later life and needs for elderly housing according to the cognitional attitude about the elderly housing. 420 middle aged who lived in Kyungnam area were responded to self-questionnaire. Two groups are divided by the cognitional attitude about the elderly housing, one is positive group and the other is negative. The positive group is higher monthly income, upper college school career and apartment housing types. Economic means to provide for their later life are an insurance, a saving, a pension etc. The positive group is willing to do higher economic expenses for elderly housing in downtown or suburban area. And the positive group prefers rental with a deposit to ownership type for residing elderly housing.

Keywords : cognitional attitude, provision for later life, needs for elderly housing

주요어 :

## 1. 서론

### 1. 연구의 배경

최근 우리나라 인구의 평균 수명은 크게 늘어나 2002년에 77.0세(남자 73.4세, 여자 80.4세)로 나타났는데, 지난 1991년 71.7세에 비하여 약 5년 이상 연장된 것이다. (통계청, 2005) 평균수명의 연장은 필연적으로 고령화를 동반하게 마련인데, 2005년 65세이상 인구가 전체 인구의 9.1%를 나타내어 이미 고령화사회에서 고령사회로 진행하고 있는 중이다.

이러한 고령화는 지금까지와는 다른 여러 가지 가족적, 사회적 변화를 만들어 내고 있으며, 안정적인 노후생활 준비는 무엇보다도 중요한 생애계획이 되어 버렸다. 고령자 예비군에 속하는 현재의 40대 이상 중년층은 1953년 6.25전쟁 후부터 경제개발이 시작되는 1960년대 초에 태어난 제 1차 베이비붐세대로 비교적 높은 교육수준을 가지고 있고, 성인이 되는 과정 중에 치열한 경쟁을 거쳤으며, 급격한 사회적 변화와 경제적 발전 및 풍요로움을 이루어낸 세대들이다. 이들이 고령화로 접어드는 시

기에는 지금보다 더 빠른 고령화를 만나게 되어 우리사회의 커다란 분수령을 이루게 될 것으로 예측된다. 이들 세대는 과거 혹은 현재의 고령세대와는 달리 길어진 자신들의 노후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준비를 하고 있다고 본다.

따라서 노후생활을 대비한 다양한 주거형태가 새로운 주거산업으로 등장하고 있는데, 최근에 여러 곳에서 사례가 발견되고 있는 실버타운이 그러하다. 실버타운은 주로 건강한 고령자들이 독립적인 생활이 가능하도록 배려되어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요양시설이 병설되어 있기도 하며, 입주자가 비용을 전액 부담하는 고령자주거의 경우를 통칭하고 있다. 2004년 12월 현재 전국에 49개소가 운영되고 있는데(보건복지부, 2005)<sup>1)</sup>, 아직은 요양시설적인 측면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 중 경남지역에는 3개소 있을 뿐이다. 경남지역의 고령화 진행에 비하여 현재의 실버타운 상황은 매우 부족한 실정인으로서 다양한 고령자주거의 대안으로서 실버타운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보여진다.

경남지역 2005년 고령인구 비율은 10.8%로 광역시와 경기도를 제외한 타도에 비하여 가장 낮은 편에 속하지

본 연구는 2006년 경남대학교 학술연구장려금의 지원으로 수행되었음.

\*정회원(주거자), 경남대학교 가정교육과 교수, 학술박사

\*\*정회원, 경남대학교 교육대학원

1) 유료양로시설이 41개소, 유료복지주택 8개소이며 경남지역에는 유료양로시설 3개소이다.

만 시군간의 지역편차가 상당히 심하게 나타나고 있다. 통계청이 발표한 ‘2005 고령자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으로 전국 234개 시군구 가운데 65세 이상 노인이 인구의 20%를 넘은 곳은 35개 군인데, 지역별로는 경남 남해군(25.8%)과 의령군(25.7%)이 가장 높은 곳으로 나타났다.(통계청, 2005) 현재의 고령화 진행도 그러할 뿐 아니라 앞으로 고령자 예비군에 속하는 경남지역의 40대 이상 중년층을 위해서도 다양한 실버타운은 필요할 것이다. 즉 경남지역의 40대 중년층도 국민연금 및 각종 개인연금 가입, 퇴직금, 소유 부동산 등으로 인해 사회적 은퇴 후에도 고정적인 소득원을 갖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들은 다양한 가치관과 라이프스타일을 갖추고 있으므로, 다양한 규모와 서비스준의 실버타운이 향후 이들을 위한 주거로 제공될 필요가 있으며, 이런 시설에 대한 수요 또한 증가하리라고 판단된다.

그리하여 현재 경남지역에 거주하는 고령자 예비군인 중년층의 노후생활 및 실버타운에 관한 의식은 가장 가까운 미래의 고령자를 사회적으로 어떻게 지원해야 할 것인가를 잘 알려주는 지표가 될 수 있다. 본 연구는 경남지역 거주 40세~60세 중년층의 실버타운에 대한 태도를 바탕으로 노후생활준비 및 실버타운의 요구도를 파악하여 경남지역의 고령자주거를 위한 자료를 제시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 2. 연구목적

본 연구는 향후 경남지역의 고령자주거의 활성화를 위한 대안을 제시하기 위하여 40세~60세 중년층의 실버타운에 대한 태도를 바탕으로 클러스터분석을 하여 집단을 분류한 후 집단별로 노후생활준비 및 실버타운의 요구도에 차이가 있는지를 파악하여 다양한 실버타운의 계획을 위한 조건을 제시하고자 한다. 연구의 구체적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경남지역에 거주하는 중년층의 실버타운에 대한 태도를 파악한다.

둘째, 실버타운의 태도를 바탕으로 클러스터분석을 한 후 집단에 따른 노후생활준비 및 실버타운의 요구도 차이를 파악한다.

셋째, 집단에 따른 분석을 바탕으로 경남지역에 적합한 다양한 실버타운의 계획조건을 제시할 수 있다.

## II. 선행연구의 동향

지금까지의 많은 다양한 선행연구가 중년층의 노후생활준비 및 고령자주거에 대한 의식 수준을 다루고 있었다. 홍형욱·유병선·전경화(2004)는 일·여가·서비스의 제공수준에 따라 5개의 노인주택계획 대안을 제시하여 이들 대안을 선택하는 집단의 특성을 비교 연구하였다. 이 중 실버타운이 가장 높게 선호되었다고 하며, 실버타운은 학력이 높고 소득과 자산이 많은 상층이 많이 선

호하였다고 보고하고 있었다. 제시된 대안 중에는 실버타운 외에 노인용코하우징, 노인공동생활주택, 자립형코뮤니티 등이 포함되어 있었다. 홍형욱·지은영(2004)의 연구에서는 서울, 경기도, 부산, 광주, 대전지역의 50대 중년층을 중심으로 노인공동생활주택에 관하여 지역을 비교하였는데, 관심계층과 공유공간의 개방정도에 대하여 지역간 차이가 존재함을 입증하였다. 이후 2005년의 연구에서는 서울시 거주 50대 중년층을 대상으로 노인공동생활주택에의 입주의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한 결과, 월소득이 낮으며 자녀가 없는 경우가 주요 변인으로 나타났다. 또한 주거환경요소(교통편리, 치안안전성, 공기, 생활편의시설)가 입주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변인으로 나타났다.

신화경(2003)은 중년층 주부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자녀결혼 후 실버타운에 입주하겠다는 희망이 높아 노년기를 위한 다양한 주거개발이 필요함을 역설하였다. 신영숙(2004)은 중년층과 노년층 여성을 대상으로 한 질적 연구에서 조사대상자들은 건강상태 단계에 따라 임종시까지 보호해줄 수 있는 실버타운을 선호한다고 하였다.

신하연(1997)의 연구에서 중년층은 노후, 경제 및 건강에 관하여 사전준비의 중요성을 강하게 인식하고 있었는데, 이러한 경향은 40대가 50대보다, 그리고 교육수준과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크게 나타나고 있다고 하였다. 구체적인 경제대책으로는 국민연금과 연금보험 등을 기대하고 있으며, 만성질환에 수반되는 서비스는 가족보다는 사회적 시설을 통해서 받으려는 태도가 높게 나타나고 있었다. 최근에 박병호 외 2인(2005)은 부산시 거주 중년층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노후대책과 실버타운 입주의향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을 추출하기 위하여 수량화분석을 하였다. 그 결과, 현거주 주택의 형태와 가족구성, 본인이 부담하게 되는 노후의 경제적 부분이 상대적으로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을 통하여 최근 평균수명이 연장됨에 따라 노후생활자금의 규모도 늘어나고 있어 노후의 경제적 문제는 노후생활에 대한 안정을 좌우하는 가장 주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실버타운에 관한 연구에서 중년층 스스로 노후에 실버타운에 입주할 것인지 아닌지 하는 연구가 많이 행해졌다. 여러 선행연구(김기수, 1998; 안승덕, 2001; 석희옥, 2001; 송복희, 2002)를 살펴보면, 조사대상자들의 실버타운에 대한 의식은 높게 나타났으나 실제 입주의사는 낮게 나타나는 경향을 보이고 있었으나, 최근의 조성희·이태경(2005)의 연구에서는 부산지역 거주 조사대상 중년층의 79.4%가 노인주거단지 입주의사를 나타냈으며, 건강상황이 나빠질수록 선택 비율이 높아질 것으로 예측하고 있었다. 이것을 통하여 실버타운에 대한 중년층의 태도가 변화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실버타운 입주동기 및 시기에 대한 많은 연구(오귀옥, 1999; 박태숙, 2000; 박영옥, 2001; 석희옥, 2001)에서 ‘건

강이 악화되어 부양이 필요시’, ‘연령이 많아 외로움을 느낄 때’, ‘건강상 필요한 서비스를 받기 위해’ 등으로 나타나서, 실버타운의 요양시설적 측면에 강한 인식을 가지고 있어 자녀에게 부양의 부담을 주지 않는 부양 수단으로서의 역할에 높은 비중을 두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실버타운의 위치에 대하여는 연령이나 소득수준에 따라서 다소 차이가 났는데, 대체로 연령이 낮을수록 도시근교를 선호하였고, 연령이 높을수록 전원지역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전기동, 1998; 김혜경, 1999; 황원향, 2001; 조남규, 2004). 소득이 높을수록 도시근교를, 소득이 낮을수록 전원지역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김옥현, 2002). 즉, 다소의 비용을 부담할 수 있다면 의료 및 문화적 혜택이 풍부한 도시에서 노후생활을 하고자 하는 의식을 보여준 반면, 소득이 낮은 경우는 전원지역의 물가가 싸므로 경제적 영향을 덜 받아 생활하기 편할 것이라는 의식이 작용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조사대상자들의 실버타운에 대한 태도가 어떠한가에 따라 집단을 분류한 후, 집단별로 향후의 실버타운에 대한 요구에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를 밝혀보고자 하는 데에서 기존의 연구와 차별화 할 수 있을 것이다.

### III. 연구 방법

#### 1. 연구대상 및 내용

본 연구를 위하여 경남지역 마산과 창원시에 거주하는 40세~60세 이하의 중년층 420명을 대상으로 유의표본 추출하여 자기기입식 설문방법을 이용하였다.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속성을 보면, 남녀가 반반의 비율로 나타났으며, 나이는 40대가 54.7%, 50대 이상이 45.3%였다. 학력은 고졸 59.1%, 대졸이상 40.9%였으며, 직업은 기타(생산기능직, 운수직, 판매 서비스직 포함) 25.0%, 자영업 24.3%, 행정·사무직과 교사가 21.0%로 나타났다. 월소득은 200~400만원 40.0%, 400만원이상 32.4%, 200만원미만 27.6%로 나타났다. 가족형태는 미혼 자녀와 거주 67.7%, 기혼자녀와 거주 28.7%로 나타났다. 현재 아파트 거주 54.3%, 단독주택 거주 36.2%였으며, 72.4%가 자가였다. 현 거주지역내 거주기간은 5년이하 24.9%, 6~10년이하 19.7%, 11년이상 55%였으며, 앞으로 현 거주지역에서 계속 거주할 것인지에 대하여는 모르겠다 38.2%, 5년 이하 27.2%, 6~10년 이하 13.8%로 나타났다.

연구에 사용된 설문지는 선행연구를 참고하여 본 연구자들이 작성하였다. 본 조사를 하기 앞서 2005년 7월 5일부터 7월 6일 사이에 예비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예비조사 후 수정된 설문지가 본조사에서 사용되었다.

설문내용은 총 53문항으로 구성되었는데,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사항에 관한 10문항, 실버타운 태도에 관한 8문항, 노후생활준비에 관한 6문항, 실버타운의 조건 및 요

구 수준에 관한 30문항 등이다. 이 가운데 실버타운태도(8문항)과, 실버타운 조건(16문항)에 관한 문항은 5점 리커트 척도로 구성되어 있는데, 각각 신뢰도분석에서 Cronbach알파가 0.904, 0.901로 나타났다.

#### 2. 자료수집 및 분석방법

자료의 수집은 2005년 7월 12일부터 7월 23일까지 약 2주에 걸쳐 마산과 창원시에 거주하고 있는 40세~60세의 중년층을 대상으로 총 500부를 배부하였다. 조사대상의 표집은 조사대상자의 연령 및 주거환경 등을 고려하여 유의표집하였다. 조사대상지역의 중학교 1곳과 고등학교 2곳에 각각 100부씩 배부하여 학생들의 부모로부터 응답을 받았으며, 주거환경을 고려하여 아파트단지 거주자들을 대상으로 100부, 단독주택지역 거주자들을 대상으로 100부 배부하였다.

배부된 총 500부의 설문지 중 429부가 회수되었으나 응답이 불성실한 것을 제외한 420부가 분석에 사용되었다.

본 연구에서의 자료분석은 SPSSWin 12.0을 사용하였으며, 분석방법은 빈도분석, 군집분석(로그우도법 이용), 교차분석, t-검증, 요인분석 등을 실시하였다.

### IV. 결과 및 해석

#### 1. 군집분석에 의한 집단분류

실버타운 태도에 관한 8개 문항을 로그우도법에 의한 군집분석을 한 결과 두 개의 군집으로 나타났는데, 군집 1에는 205명, 군집2에는 210명 이 포함되었고 두 군집이 포함되지 않은 조사대상자는 5명으로 나타났다(표 1). 다음의 <표 2>에는 두 군집간의 실버타운 태도에 관한 t-test 결과를 나타내었다. 각 문항에 대하여 모두  $p < .00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는데, 군집1은 군집2에 비하여 모든 문항에서 평균 4.0을 전후한 높은 점수를 보였으나 군집2는 문항 1(나는 실버타운이 어떤 곳인지 알고 있다)을 제외하고는 평균 3.0 이하의 낮은 점수를 보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군집 1을 실버타운에 대한 태도가 ‘적극적 집단’, 군집2는 ‘소극적 집단’으로 명명하고자 한다.

#### 2. 집단별 일반적 속성 및 노후생활준비

##### 1) 집단별 일반적 속성 차이

조사대상자를 적극적 집단과 소극적 집단으로 나눈 결과, 이들이 일반적 속성과는 어떠한 특성을 나타내고 있는 지 알아보기 위하여 성, 연령, 학력, 직업, 월소득, 거

표 1. 클러스터분석에 의한 군집분포

	군집1	군집2	제외사례수	합계
사례수	205	210	5	420
조합 중 %	49.4	50.6		100.0
전체 중 %	48.8	50.0	1.2	100.0

표 2. 집단별 실버타운 태도의 차이검증 M(S.D.)

문항	군집1 (적극적집단)	군집2 (소극적집단)	t값
문항1	4.06(0.78)	3.19(0.97)	10.060***
문항2	4.22(0.65)	2.98(0.89)	16.147***
문항3	3.78(0.82)	2.37(0.95)	16.191***
문항4	3.93(0.69)	2.36(0.81)	21.157***
문항5	4.23(0.65)	2.85(0.96)	17.135***
문항6	3.92(0.75)	2.24(0.80)	22.009***
문항7	4.20(0.69)	2.55(1.00)	19.575***
문항8	3.70(0.83)	2.10(0.85)	19.503***

\*\*\*p<.001수준에서 유의함.

- 문항1. 나는 실버타운이 어떤 곳인지 알고 있다.
- 문항2. 나는 실버타운이 노후생활을 위해서 좋은 곳이라고 생각한다.
- 문항3. 나는 실버타운에 대한 관심을 젊어서부터 가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 문항4. 나는 현재 실버타운에 대하여 관심이 있다.
- 문항5. 나는 실버타운이 많이 생길기를 바란다.
- 문항6. 나는 언젠가는 실버타운에 입주하기 희망한다.
- 문항7. 나는 마음에 드는 실버타운이 있다면 노후에 그곳에서 살기를 희망한다.
- 문항8. 나는 앞으로 실버타운을 구매(혹은 임대)할 의향을 가지고 있다.

주주택의 종류 등과 교차분석하여 그 결과를 <표 3>에 나타내었다. 성, 연령, 직업속성은 집단에 따른 차이가 없지만, 학력, 월소득, 거주주택의 종류는 p<.05, p<.01, p<.001 수준에서 통계적인 유의차를 나타내었다.

즉, 고졸이하의 학력에서는 소극적 집단이 적극적 집단보다 높은 비율을 보였으며, 대졸이상의 학력에서는 적극적 집단이 소극적 집단보다 높게 나타났다. 월소득면에서는 적극적 집단에서 401만원 이상에 더 높은 비율을 나타내었으며, 소극적 집단에서는 200만원 이하가 상대적으로 더 높게 나타났다. 또한 거주주택의 종류에서

표 3. 집단별 일반적 속성에 관한 교차분석 명(%)

		적극적집단	소극적집단	합계	χ <sup>2</sup> 값
성	남자	96( 46.8)	112( 53.3)	208( 50.1)	1.76
	여자	109( 53.2)	98( 46.7)	207( 49.9)	n.s.
연령	40대	111( 54.1)	116( 55.2)	227( 54.7)	0.50
	50대	94( 45.9)	94( 44.8)	188( 45.3)	n.s.
학력	고졸이하	108( 53.5)	135( 64.3)	243( 59.0)	4.98*
	대졸이상	94( 46.5)	75( 35.7)	169( 41.0)	
직업	전문·경영	29( 14.1)	28( 13.3)	57( 13.7)	7.24 n.s.
	행정·사무	48( 23.4)	40( 19.0)	88( 21.2)	
	자영업	48( 23.4)	51( 24.3)	99( 23.9)	
	기타(판매서비스)	41( 20.0)	63( 30.0)	104( 25.1)	
	주부·무직	39( 19.0)	28( 13.3)	67( 16.1)	
월소득	200만이하	43( 21.1)	72( 34.6)	115( 27.9)	11.58**
	201-400	82( 40.2)	81( 38.9)	163( 39.6)	
	401만이상	79( 38.7)	55( 26.4)	134( 32.5)	
거주주택	단독주택,다가구	60( 29.3)	98( 46.7)	158( 38.1)	13.32***
	아파트,연립주택	145( 70.7)	112( 53.3)	257( 61.9)	
합계		205(100.0)	210(100.0)	415(100.0)	

주)무응답은 분석에서 제외하여 합계에 차이가 있을수 있음.

\*p<.05, \*\*p<.01, \*\*\*p<.001 수준에서 유의함.

적극적 집단이 소극적 집단에 비하여 단독주택·다가구 주택 거주가 낮게 나타났으며, 아파트·연립주택 거주가 더 높게 나타났다. 따라서 대졸이상의 학력으로 월소득이 높으며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 거주자인 경우가 실버타운에 대하여 적극적 태도를 지녔다고 판단된다. 본 연구의 조사대상자들의 학력, 월소득, 거주주택간에는 상호 높은 관련성을 보였는데(표생략), 대졸이상의 학력을 지닌 경우 월소득이 높고,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 거주가 높은 경향을 보여주었다(p<.001).

2) 집단별 노후생활준비 차이

조사대상자들의 노후생활준비에 대하여는 노후 자녀와의 동거/별거 의향, 노후생활의 지속장소, 노후에 별거할 경우 자녀와의 물리적 거리정도, 노후의 경제적 대처방법 및 필요자금과 준비가능자금 등에 관한 문항으로 구성하여 <그림 1~3>, <표 4> 등에 나타내었다.

먼저, 노후에 자녀와의 동거/별거 의향에 대하여 <그림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집단에 상관없이 별거를 희망하는 경우가 77% 정도로 나타났다. 동거를 희망하는 경우도 23~24% 정도 나타나고 있어 현재 중년층 부모세대는 스스로가 자녀와의 독립된 생활을 희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4>에는 노후생활을 지속하고자 하는 장소, 노후에 별거하고자 하는 경우 자녀와의 물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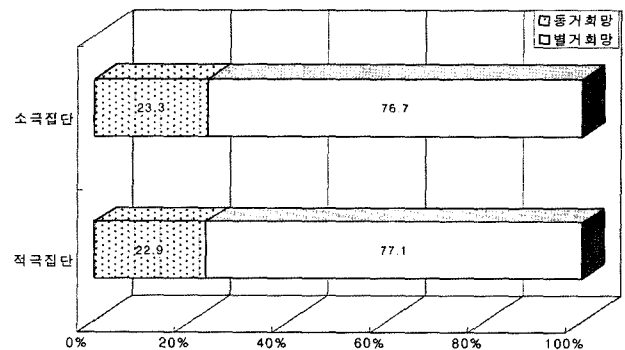


그림 1. 집단별 노후 자녀와의 동거/별거의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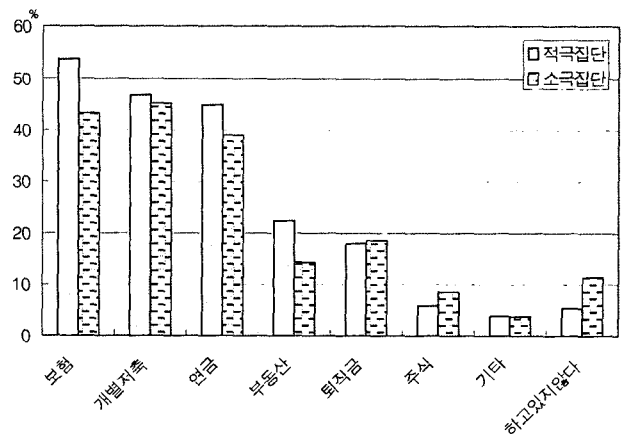


그림 2. 집단별 노후 경제적 대처방법(다중응답)

표 4. 노후생활에 관한 교차분석 명(%)

		적극적 집단	소극적 집단	합계	궤차
노후 생활 지속 장소	그대로	23 ( 11.2)	41 ( 19.9)	64 ( 15.6)	59.31***
	옮길 예정	106 ( 51.7)	131 ( 63.6)	237 ( 57.7)	
	실버타운입주	59 ( 28.8)	4 ( 1.9)	63 ( 15.3)	
	상관없다	17 ( 8.3)	30 ( 14.6)	47 ( 11.4)	
합 계		205 (100.0)	210 (100.0)	415 (100.0)	
별거 자녀	얼마든지 떨어져도..	95 ( 61.7)	105 ( 68.2)	200 ( 64.9)	1.85 n.s.
	같은 아파트 단지내	29 ( 18.8)	21 ( 13.6)	50 ( 16.2)	
	같은 시내, 인접 시내	30 ( 19.5)	28 ( 18.2)	58 ( 18.8)	
	합 계	154 (100.0)	154 (100.0)	308 (100.0)	

주)부응답은 분석에서 제외하여 합계에 차이가 있을수 있음.

\*\*\*p<.001 수준에서 유의함..

적 거리 정도를 집단별로 교차분석한 결과를 나타내었는데, 노후생활 지속 장소에 대하여는 집단간에 p<.001 수준에서 통계적인 유의차를 나타내었다. 자녀와의 물리적 거리정도에는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지 못하였다. 적극적 집단은 소극적 집단에 비하여 실버타운 입주비율이 28.8%로 높게 나타났으며, 노후에도 지금의 장소에서 그대로 살겠다는 비율과 지역내 다른주택이나 타 지역으로 옮길 예정에 대해서는 소극적 집단에 비하여 낮게 나타났다. 따라서 적극적 집단은 소극적 집단에 비하여 노후생활지속장소를 다양하게 선택하는 경향이 있다고 볼 수 있다.

노후에 자녀와 별거하고자 하는 경우 자녀와 물리적 거리정도에 대하여는 집단별로 통계적 유의차가 나타나지 않았는데, 64.9%가 자녀와는 얼마든지 떨어져도 상관없다는 응답이어서 일단 별거를 한다면 거리는 전혀 상관할 필요가 없다는 의식으로 파악된다. 이러한 비율은 신화경(2003)의 연구와는 상당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신화경(2003)의 연구 결과에서는 조사대상자의 약 90% 이상이 자녀와 같은 시내에서 거주하는 것을 선호하였는데, 이러한 차이는 조사대상을 중년여성만으로 수행한 까닭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길어진 노후생활을 안정적으로 지속하려면 무엇보다도 경제적 안정이 중요할 것이다. 조사대상자들의 노후생활을 위한 경제적 대처 방법에 대하여 다중응답을 하도록 한 결과, 집단 간에 다소의 차이를 나타내었다. 그림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전체적으로는 보험, 개별저축, 연금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또한 서로 유사한 점유율을 보였으나 집단 간에는 다소의 차이를 보였다. 적극적 집단에서는 소극적 집단에 비하여 보험과 연금, 부동산의 비율이 다소 높은 반면에 소극적 집단은 퇴직금이나 주식의 비율이 적극적 집단보다 미미하게 높게 나타났다. 특히 소극적 집단에서는 '하고 있지 않다'가 10%를 넘는 비율을 보이고 있어서 적극적 집단은 소극적 집단보다 노후준비에 상대적으로 높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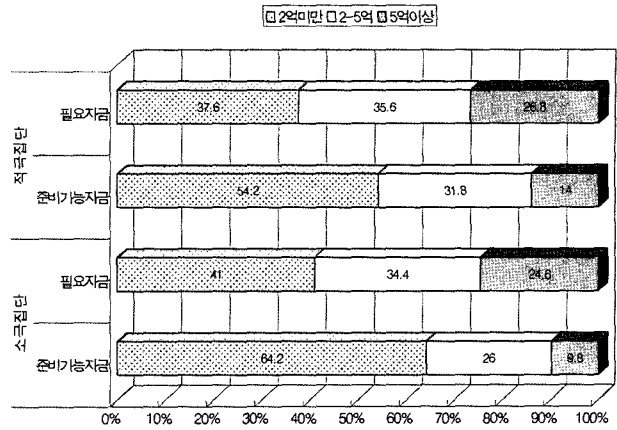


그림 3. 집단별 노후생활의 필요/ 준비가능 자금

노후생활을 위한 자금을 필요자금과 준비가능자금으로 나누어 본 결과, 다음의 <그림 3>에 나타내었다. 적극적 집단에서는 필요자금을 2억미만으로 본 경우가 37.6%, 2~5억미만 35.6%, 5억이상 26.8%로 나타났으나 준비가능자금으로는 2억미만 54.2%, 2~5억미만 32.8%, 5억이상 14%로 나타났다. 소극적 집단에서는 필요자금을 2억미만으로 본 경우 41%, 2~5억미만 34.4%, 5억 이상 24.6%으로 나타난 반면, 준비가능자금을 2억미만으로 본 경우는 64.2%, 2~5억미만 26%, 5억이상 9.8%로 나타났다.

집단간에 노후 필요자금의 규모는 비슷하게 쏘고 있었으나, 준비가능 자금에서는 적극적 집단이 소극적 집단에 비하여 규모가 다소 넉넉한 편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두 집단 모두 필요자금과 준비가능 자금과는 상당한 차이가 보였는데, 특히 소극적 집단에서 두드러진 차이를 보였다. 이러한 경향은 월소득면에서 적극적 집단이 소극적 집단에 비하여 소득이 높게 나타난 것에 원인이 있을 것으로 추측된다. 전반적으로 예상 필요자금과 준비가능자금이 맞지 않고 있어 향후 길어진 노후생활을 어떻게 규모있게 보내야 하는가는 개인 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의 고령자복지 측면에서도 다양한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 3. 집단별 실버타운의 요구도

조사대상 중년층이 생각하는 실버타운의 요구수준을 구체화하기 위하여 향후 입주 태도 및 시기, 위치 및 주택 유형, 규모, 비용, 실버타운의 물리적 조건 등으로 나누어 살펴보기로 한다.

#### 1) 집단별 실버타운의 입주태도 및 시기

먼저 집단별로 향후 실버타운의 입주태도 및 시기에 대하여 교차분석한 결과를 다음의 <표 5>에 나타내었다. 향후 입주태도 및 입주시기에 대하여 집단별로 p<.001, p<.05수준에서 통계적인 유의차를 보였다. 향후 입주태도에서 적극적 집단은 약 반 수 가량은 '입주한다'는 긍정적인 태도를 보이거나 42.9%는 '모르겠다'는 유보적인 태

표 5. 집단별 실버타운의 입주태도 및 시기 명(%)

		적극적집단	소극적집단	합계	$\chi^2$ 값
향후 입주태도	입주한다	99(48.3)	5( 2.4)	104(25.1)	126.01***
	안한다	18( 8.8)	71(33.8)	89(21.4)	
	모르겠다	88(42.9)	134(63.8)	222(53.5)	
입주시기	은퇴전	31(15.2)	41(19.6)	72(17.4)	10.71*
	은퇴후 바로	20( 9.8)	6( 2.9)	26( 6.3)	
	부양이 필요할 때	75(36.8)	88(42.1)	163(39.5)	
	배우자 사망후	39(19.1)	32(15.3)	71(17.2)	
	자녀 결혼후	39(19.1)	42(20.1)	81(19.6)	
	합계	205(100.0)	210(100.0)	415(100.0)	

주)무응답은 분석에서 제외하여 합계에 차이가 있을수 있음.

\*p<.05, \*\*\*p<.001 수준에서 유의함.

도를 보인 반면에, 소극적 집단에서는 ‘입주한다’는 태도는 2.4%로 아주 낮은 응답을 보이고 있는 반면, 63.8%가 유보적인 ‘모르겠다’는 태도를 나타내고 있다.

입주시기에 대하여는 ‘부양이 필요할 때’가 전체의 39.5%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은 ‘자녀 결혼후’ 19.6%, ‘은퇴전’ 17.4%, ‘배우자 사망후’ 17.2% 등의 차례로 나타났다. 특히 적극적 집단은 소극적 집단에 비하여 ‘은퇴후 바로’, ‘배우자 사망후’에서 높게 나타났으며, ‘자녀결혼후’는 비슷하게, ‘부양이 필요할 때’는 적극적 집단보다 소극적 집단이 높게 나타났다. ‘부양이 필요할 때’를 입주시기로 보는 경우는 실버타운을 요양기관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이들은 심리적으로 자녀에게 간병의 부담을 주기 싫어하는 경향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조사대상자들은 실버타운이 고령자의 건강상태에 따라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원해줄 것을 기대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되는데, 조성희·이태경(2005)의 연구, 신영숙(2004)의 연구에서도 일치된 경향을 나타내었다. 최근에 실버타운내에 요양기관을 병설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는데, 이러한 경향을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2) 집단별 실버타운의 위치 및 주택유형, 규모

집단별로 실버타운의 위치 및 주택유형, 규모에 대하여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를 교차분석한 결과, 다음의 표 6에 나타내었다.

실버타운의 위치에 대하여 전체적으로 ‘도시근교’가 58.6%로 가장 선호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다음으로 ‘농촌·휴양지역’이 26.9%로 나타났다. 이러한 경향은 선행연구(안승덕, 2001; 조희자, 2002; 이정희, 2002; 신영숙, 2004)의 연구와도 일치하고 있다. 집단별로는 적극적 집단이 ‘도시지역’과 ‘도시근교’에 높은 비율을 보여 도시의 편리한 생활에 비중은 둔 반면에, 소극적 집단은 상대적으로 ‘농촌·휴양지역’에 높은 응답을 하여 전원의 목가적 생활에 비중은 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p<.001).

실버타운의 바람직한 주택유형으로는 ‘연립주택(타운하우스 포함), 저층아파트’를 포함하는 저층형 공동주택이 전체의 61.6%를 차지하여 가장 지배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은 ‘단독주택’으로 26.1%를 차지하여 대부분의

응답자가 실버타운의 주택유형으로는 저층의 점지형 주거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극적 집단이 적극적 집단에 비하여 단독주택의 비율이 높으며, 적극적 집단은 소극적 집단에 비하여 저층형 아파트, 고층아파트의 비율이 다소 높아 상대적으로 도시적 밀집형 주거를 수용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p<.05).

실버타운의 개별주호의 규모는 사실상 실버타운의 입주비용과 연계되어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비용과는 연계시키지 않고 개별주호의 희망규모를 부부용과 독신용으로 나누어 알아보았다. 부부용을 위한 개별주호 규모를 살펴보면, 전체적으로 ‘20평미만’이 약 40%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으며, 다음으로 ‘21~30평’ 37.4%, ‘31평이상’ 22.7%의 차례로 나타났다. 적극적 집단이 소극적 집단에 비하여 더 넓은 규모를 요구하는 경향이 있는데, 특히 ‘31평이상’에서 49.5%를 보여 두드러진 차이를 보였다.(p<.001)

독신용을 위한 개별주호 규모에서는 전체적으로 ‘11~20평미만’이 46.4%, ‘10평미만’ 30.0%, ‘21~30평’ 19.1%의 차례로 나타났다. 집단간에는 통계적인 유의차가 나타나지 않았다.

실버타운의 개별주호(부부용)에 요구되는 공간으로 개실수, 거실 유무, 식당 및 부엌 유무, 욕실수 등 필요한 공간에 대해 조사한 결과(표 생략), 개실수로는 1실 28.8%, 2실 60.0%, 3실 11.2%를 나타내었고, 전체의 95.2%가 거실을 요구하고 있었다. 또한 전체의 91.4%가 식당 및 부엌을 요구하고 있었으며, 욕실수로는 1실 83.1%, 2실 16.9%로 나타났다. 이것으로 보아 실버타운에 요구되는 개별주호의 평균적 거주공간은 2LDK 즉, ‘2 개실+거실+DK+1 욕실’로 구성해 볼 수 있을 것이다.

표 6. 집단별 실버타운의 위치 및 주택유형, 규모 명(%)

		적극적집단	소극적집단	합계	$\chi^2$ 값
위 치	도심지	30(14.6)	8( 3.8)	38( 9.2)	32.30***
	도시근교	132(64.4)	110(52.9)	242(58.6)	
	농촌·휴양	38(18.5)	73(35.1)	111(26.9)	
	상관없다	5( 2.4)	17( 8.2)	22( 5.3)	
주 택 유형	단독주택	42(20.5)	66(31.6)	108(26.1)	9.34*
	연립,저층아파트	134(65.4)	121(57.9)	255(61.6)	
	고층아파트	23(11.2)	13( 6.2)	36( 8.7)	
	기타	6( 2.9)	9( 4.3)	15( 3.6)	
규모 (부부)	20평미만	78(38.0)	87(41.6)	165(39.9)	10.49**
	21-30평	67(32.7)	88(42.1)	155(37.4)	
	31평이상	60(49.5)	34(16.3)	94(22.7)	
규모 (독신)	10평미만	58(28.4)	66(31.4)	124(30.0)	2.35
	11-20평	92(45.1)	100(47.6)	192(46.4)	
	21-30평	45(22.1)	34(16.2)	79(19.1)	
	31평이상	9( 4.4)	10( 4.8)	19( 4.6)	
	합계	205(100.0)	210(100.0)	415(100.0)	

주)무응답은 분석에서 제외하여 합계에 차이가 있을수 있음.

\*\*p<.01, \*\*\*p<.001 수준에서 유의함.

3) 집단별 실버타운의 소유 및 비용, 운영

실버타운의 소유 및 입주에 관련되는 비용, 운영주체 등에 대하여 집단별로 교차분석한 결과를 <표 7>에 나타내었다.

실버타운의 소유방식으로는 전체의 약 반수인 49.5%가 '보증금 임대' 방식을 선호하였으며, 다음으로 '자기소유' 방식이 26.0%로 나타났다. 집단간에는 통계적인 유의차가 없었다. 홍형욱·지은영(2004)의 연구에서는 노인공동생활주택의 경우 임대보다는 분양이 사업가능성이 높다고 보았으나, 본 연구에서는 고비용을 요구하는 분양을 통한 소유보다는 임대가 높게 나타났다. 조사대상자들은 노년기에 입주하는 실버타운에 대하여 소유를 고집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여져서 향후 실버타운의 소유방식에 대하여는 좀 더 다양한 연구를 계속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진다.

실버타운의 입주시 보증금 임대 형식을 취할 경우 조사대상자들이 생각하는 보증금의 적당한 금액을 살펴보면, 적극적 집단은 소극적 집단에 비하여 '5천만~1억 미만', '1억 이상'에 높은 응답율을 보여 상대적으로 높은 보증금을 지불할 의향이 있음을 판단할 수 있다. 이에 비하여 소극적 집단은 '2천만원 미만'에 가장 높은 응답율을 보이고 있으며, '2~5천만원'의 응답율을 포함하면 소극적 집단의 75%가 입주보증금이 5천만원 이하라면 수용가능한 범위임을 알 수 있다(p<.001).

실버타운의 입주시 보증금 이외에도 매월 지불해야 하는 비용이 어느 정도가 적당하다고 보는지에 대하여 알아본 결과, 전체의 43.3%가 '10만원 미만'을 꼽고 있었다. 다음으로 '11~20만원' 28.6%, '31만원이상' 14.9%, '21~30만원' 13.2%로 나타났는데, 조사대상자의 70% 이상이 월비용으로 20만원 미만으로 보고 있었다. 여기에

서 월비용이라 함은 실버타운의 유지관리 및 제반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는 비용을 전제로 한 것이다. 이러한 월비용은 집단별로 p<.001수준에서 통계적인 유의차를 나타내었다. 즉 적극적 집단에서는 '31만원이상'에도 21.3%의 응답율을 보여 소극적 집단에 비하여 높은 월비용을 부담할 의향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에 비하여 소극적 집단에서는 반수 이상인 51.7%가 '10만원 미만'으로 응답하여 보증금과 월비용 모두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을 요구하고 있었다. 보증금과 월비용이 높아지면 서비스의 질과 내용에서 다양해질 것이고 양질이 될 것으로 볼 수 있으나 많은 고령자들이 폭넓은 이용을 고려한다면 선택의 폭이 넓은 다양한 실버타운의 공급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실버타운의 운영 및 관리 주체로 적합한 기관으로는 전체의 45.9%가 '정부 및 지방자치 단체'를 꼽고 있으며, 다음으로 '종교 및 사회복지법인 등의 비영리법인' 30.8%, '대기업 및 의료기관 등의 영리단체' 23.3%로 나타났다. 집단별로는 p<.05수준에서 통계적인 유의차를 나타내었다. 즉 가장 높은 응답에서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를 꼽고 있는 것은 두 집단 모두 같으나 두 번째의 응답에서 적극적 집단은 소극적 집단에 비하여 비영리단체를 운영주체로서 꼽고 있는 비율이 36.9%로 나타났다. 이러한 수치는 첫 번째 응답을 보인 정부·지방자치단체의 41.4%와는 큰 차이가 없어 비슷한 역할을 기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될 수 있을 것이다. 이로써 조사대상자들의 상당수는 노후에 대한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와 같은 공공기관의 역할에 대한 높은 기대를 하고 있음을 추측할 수 있는 한편, 적극적 집단과 같이 상대적으로 다양한 공급주체를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것은 서비스의 다양화와 고급화가 수용될 가능성이 있음을 짐작하게 한다.

4) 집단별 실버타운의 구비 조건

실버타운에는 보통 가족이 거주하는 주거시설보다 세심한 조건이 요구된다. 실버타운이 구비하여야 할 조건 16문항에 대하여 조사대상자들이 가장 중요도가 높은 것으로는 긴급연락시설(4.56), 의무실(4.38), 약국·병원(4.31), 산책로·공원(4.28), 개별난방(4.25) 등을 꼽고 있었다. 반면에 중요도가 낮은 것으로는 젊은 세대와 혼합구성(2.98), 교회·절과 같은 종교시설 근접(3.19), 형제나 친척집 근접(3.24), 자녀집 근접(3.40) 등으로 나타났다. 의료관련 시설의 중요도를 높게 본 것은 선행연구의 결과와 일치하고 있다. 그러나 실버타운의 구성을 젊은 세대와 혼합구성으로 하는 것에는 보통이하의 낮은 평가를 하여 본 연구의 조사대상자들에게는 실버타운에서 젊은 세대의 거주에 대하여 부정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짐작할 수 있으며, 순수하게 고령자만을 위한 주거로 요구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자녀의 집이나 형제 혹은 친척집과의 근접에 대해서도 그다지 열성적이지 않았다. 이것은 앞서 조사대상자들의 약 80%가 별거를 원하

표 7. 집단별 실버타운의 소유 및 비용, 운영 명(%)

		적극적집단	소극적집단	합계	χ <sup>2</sup> 값
소유 방식	자기소유	52(25.4)	55(26.6)	107(26.0)	0.65
	보증금임대	104(51.0)	100(48.3)	204(49.5)	
	월임대	20(9.8)	18(8.7)	38(9.2)	
	상관없다	29(14.1)	34(16.4)	63(15.3)	
비용 (보증금)	2천만원미만	49(24.4)	87(41.4)	136(33.1)	15.98***
	2.5천만원	72(35.8)	65(31.0)	137(33.3)	
	5천만-1억미만	57(28.4)	47(22.4)	104(25.3)	
	1억이상	23(11.4)	11(5.2)	34(8.3)	
비용 (월비용)	10만원미만	68(34.5)	106(51.7)	174(43.3)	22.70***
	11-20만원	53(26.9)	62(30.2)	115(28.6)	
	21-30만원	34(17.3)	19(9.3)	53(13.2)	
	31만원이상	42(21.3)	18(8.8)	60(14.9)	
운영주체	정부,지방자치단체	84(41.4)	105(50.2)	189(45.9)	7.08*
	비영리단체	75(36.9)	52(24.9)	127(30.8)	
	영리단체	44(21.7)	52(24.9)	96(23.3)	
합계		205(100.0)	210(100.0)	415(100.0)	

주)무응답은 분석에서 제외하여 합계에 차이가 있을수 있음.

\*p<.05, \*\*p<.01, \*\*\*p<.001 수준에서 유의함.

였으며, 별거의 경우도 약 65%가 아무리 떨어져도 상관 없다고 하여 자녀집과의 근접에 크게 구애를 받지 않는 의식을 보여주고 있었는데 일맥상통한다고 하겠다.

실버타운의 물리적 구비조건을 몇 가지 요인으로 묶기 위하여 요인분석(주성분분석, 베리맥스)을 한 결과, 다음의 <표 8>에 나타내었다. 회전 결과 4개의 요인으로 나타났으며, 각 요인에 '편리요인', '설비요인', '문화요인', '사회요인'으로 명명하였다. 편리요인에는 대중목욕탕 근접, 대중교통 근접, 우체국·은행의 근접, 약국·병원의 근접 등이 포함되었으며, 설비요인에는 비상연락시설 설치, 의무실 설치, 개별난방 설치, 스포츠시설, 산책로·공원 설치 등이 포함되어 있다. 문화요인에는 젊은 세대와의 혼합구성, 도서관 및 교회·절, 관공서 등의 근접이 포함되어 있으며, 사회요인에는 자녀집, 형제집, 친척집과의 근접이 포함되어 있다. 편리요인이 요인분석 결과 제 1요인으로 나타났는데, 이것은 유병선·홍형욱(2005)의 연구에서 주거환경요소(교통편리, 치안안전성, 공기, 생활편의시설)가 입주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으로 파악된 것과 일치되는 경향임을 알 수 있다.

이들 요인을 집단별로 t-test한 결과(표 9), 집단간에

표 8. 실버타운의 구비 조건에 관한 요인분석

	요인 성분			
	편리	설비	문화	사회
· 대중목욕탕근접	.806	.130	.218	.093
· 대중교통근접..	.745	.179	.199	.104
· 우체국·은행....	.743	.185	.150	.269
· 약국, 병원 근접	.673	.437	-.017	.150
· 비상연락시설...	.181	.835	.043	.059
· 의무실 설치..	.064	.811	.116	.034
· 개별난방.....	.233	.586	.113	.095
· 스포츠시설...	.148	.548	.434	-.030
· 산책로,공원...	.350	.518	.291	-.006
· 젊은세대함께...	.157	-.014	.728	.276
· 도서관 근접..	.194	.232	.724	.004
· 교회,절 근접....	.060	.198	.724	.165
· 관공서 근접....	.389	.125	.673	.117
· 자녀집 근접..	.122	.080	.144	.882
· 형제집 근접...	.140	-.014	.210	.865
· 친구집 근접..	.454	.126	.066	.557
요인적재값	3.389	2.696	2.636	2.093
분산(%)	19.93	15.86	15.51	12.31
누적분산(%)	19.93	35.79	51.30	63.61

표 9. 집단별 실버타운의 구비조건 요인 t-test M(S.D.)

문항	적극적 집단	소극적 집단	t값
편리요인	4.15(0.63)	3.92(0.70)	3.55***
설비요인	4.41(0.53)	4.17(0.61)	4.22***
문화요인	3.43(0.81)	3.10(0.76)	4.17***
사회요인	3.50(0.87)	3.33(0.77)	2.16*

\*p<.05, \*\*\*p<.001 수준에서 유의함.

p<.05, p<.001수준에서 통계적인 유의차를 나타내었다. 적극적 집단이 소극적 집단에 비하여 각 요인의 중요도에 더 높은 점수를 나타내었는데, 적극적 집단일수록 실버타운의 물리적 구비조건에 관심이 높기 때문일 것으로 해석된다.

## 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에서는 경남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중년층 420명을 대상으로 실버타운에 대한 태도를 바탕으로 클러스터분석을 한 결과, 적극적 집단과 소극적 집단으로 분류할 수 있었다. 집단 간 차이는 여러 측면에서 향후 지역에서 요구되는 실버타운의 방향을 파악하는데 의미있는 결과를 나타내었다.

적극적 집단은 소극적 집단에 비하여 대졸이상의 학력, 401만원 이상의 월소득,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 거주라는 특성을 나타내었다. 본조사에서는 학력, 월소득, 거주주택간에는 상호 높은 관련성을 보여 이들 변인이 실버타운의 적극적 태도를 설명하는 주요 변수임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적극적 집단은 노후의 생활을 지탱해주는 재정적 준비도 소극적 집단보다 보험, 연금, 부동산 등에서 다소 높게 나타나고 있었다. 그러나, 조사대상자들의 77%가 자녀세대와는 별거를 희망하고 있는 상황에서 노후의 필요자금을 비하여 준비가능자금이 상당수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노후생활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다각도의 전략이 요구되어지는 바이다.

적극적 집단은 노후에 기회가 된다면 실버타운에 입주하겠다는 긍정적인 경우가 노후생활 지속장소에 나타난 경우보다 더 높게 나타나서 적극적 태도를 지닌 계층은 선택의 기회가 주어진다면 실버타운을 이용할 계층으로 전환이 가능하리라고 보여진다. 적극적 집단은 도심지나 도심근교를 선호하고 있는데, 적극적 집단일수록 자신의 라이프스타일에 가까운 실버타운을 선호하는 것으로 볼 수 있겠다. 적극적 집단은 실버타운의 입주비용에서도 소극적 집단에 비하여 상대적인 고비용을 지출할 용의가 있으며 시설 요구도 또한 높아서 이들 집단을 끌어들이 수 있는 양질의 시설과 다양한 서비스가 가능한 지역의 실버타운 개발이 매우 필요함을 알 수 있었다.

이상의 여러 분석을 통하여 적극적 집단이 가지는 경남지역의 실버타운은 '다양한 운영주체+도시근교+저층 위주의 아파트 형태+ 비교적 다양한 주호 규모(20평 미만, 21-30평, 31평 이상)+2LDK의 공간구성+보증금(2-5천만원, 5천만-1억원, 1억원 이상) 임대형식'으로 정리될 수 있을 것이다. 소극적 집단은 향후 실버타운에 입주할 전망은 낮아보이지만 '부양이 필요할 때'의 상황에 직면하거나 상대적으로 낮은 임대 보증금의 정부나 지자체가 운영하는 실버타운인 경우는 이용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진다.

향후 고령사회에서 고령자들의 라이프스타일은 다양해



질 것이고 이에 따라 자신의 관심과 경제력에 의한 선택가능한 다양한 실버타운의 개발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그러나, 오늘날 일부 고소득계층만이 입주할 수 있는 초고비용의 실버타운 개발이 크게 소개되고 있어 중산층 이하가 입주할 수 있는 실버타운의 개발이 아쉬운 실정이다. 따라서 중산층이 입주할 수 있는 실버타운과 동시에 현재 실버타운에 소극적이라고 할지라도 '부양이 필요할 때'에 입주가능한 실비 차원의 실버타운의 개발이 요구되는 바이다. 앞으로 경남지역에 필요한 실버타운이 어떻게 공급되어지고 운영되어질 것인가가 하는 것은 고령자주거 복지문제가 점차 증대되어가는 앞으로의 상황에 지자체를 포함한 지역사회가 풀어나가야 할 과제일 것이다.

### 참 고 문 헌

1. 박병호·김수남·최창현(2005.8), “부산시 중년층의 노후에 대한 인식 및 실버타운 입주의향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지회연합논문집, 7권 3호, pp.75-82.
2. 조성희·이태경(2005.8), 예비노인의 노후상황별 주거환경 선호도에 관한 연구, 한국주거학회지, 16권 4호, pp.9-16.
3. 유병선·홍형욱(2005.4), 노인공동생활주택에의 입주의사 결정 요인분석, 한국주거학회지, 16권 2호, pp.99-105.
4. 신영숙(2004.4), 중년층과 노년층의 노인시설주거 선택속성에 관한 연구, 한국주거학회지, 15권 2호, pp.43-54.
5. 홍형욱·지은영(2004.2), 노인공동생활주택에 대한 지역별 견해 비교-서울, 수도권, 부산, 광주, 대전지역을 중심으로-, 한국주거학회지, 15권 1호, pp.163-174.
6. 홍형욱·유병선·전경화(2004.2), 노인계획주거대안선택집단에 따른 특성비교-일·여가·서비스 제공 수준 차이를 중심으로-, 한국주거학회지, 15권 1호, pp.9-16.
7. 신화경(2003.8), 예비여성노인의 노후생활계획에 관한 연구, 한국주거학회지, 14권 4호, pp.31-38.
8. 김옥현(2002), “광주지역 중년층 욕구조사를 통한 실버타운 개발방향에 관한 연구”, 동신대학교 석사학위논문.
9. 김혜경(1999), “실버산업의 입주 선호도에 관한 연구”; 서울시 서초구의 차세대 노령을 대상으로, 단국대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0. 김기수(1998), “실버타운 조성 모형에 관한 연구 ; 개념적 틀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1. 박영옥(2001), “중년층의 유료노인복지시설 입주의식 및 선호도에 관한 연구”, 동덕여대 여성개발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2. 박태숙(2000), “한국 유료노인복지시설의 선호도에 관한 연구 : 전남지역 교원 및 공무원을 대상으로”, 단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3. 송복희(2002), “중년세대의 실버타운 선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한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4. 석희옥(2001), “유료노인복지시설 이용에 대한 의식 조사; 대전·충남 지역을 중심으로”, 원광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5. 신하연(1997), “중년기 소비자들의 경제적 노후대비 수준과 실버타운에 대한 요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6. 이정희(2002), “노인 주거복지 향상을 위한 연구 : 성복구·동대문구 아파트 거주 노인을 중심으로”, 동국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17. 안승덕(2001), “우리나라 실버산업의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 대전광역시 시민의식을 중심으로”, 대전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8. 오귀옥(1999), “중·장년층의 실버타운에 대한 요구도와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한양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 조남규(2004), “유료노인주거복지시설에 대한 의식 및 선호도에 관한 연구”, 건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p. 1.
20. 조희자(2002), “중년층의 실버타운 요구도에 관한 연구”, 경기대 석사논문.
21. 전기동(1998), “유료노인 복지시설의 입주를 제고 방안”, 연세대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2. 황원향(2001), “유료노인주거복지시설에 대한 의식 조사 연구(안산시를 중심으로)”, 단국대학교 사회복지전공.
23. 통계청, www.nso.go.kr

(接受: 2006. 1. 13)

